

임실 노인종합복지관 확대 신축

국도비 포함 68억원 투입... 내년 10월 완공 목표

임실지역 어르신들의 행복쉼터가 될 노인종합복지관이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

효심행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임실군은 오랜 숙원사업인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함에 따라 '어르신들이 행복한 임실'을 만들어 가고 있다.

9일 임실군은 노인복지관 일대당에서 심 민 군수와 문영두 군의장을 비롯해 내외빈과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존의 노인복지관이 매우 협소한 탓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지역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기에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게 됐다.

그동안 신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있었지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해 임실군은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역 국회의원인 이용호 의원과의 적극적인 협조 등에 힘입어 국비(6억원)와 도비(7억원)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라 군은 군비 55억원을 포함해 총 68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복지회관은 201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임실읍 소재 기존 노인복지회관 인근의 3,315㎡ 부지에 지어진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는 경로식당과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2층에는 대강당과 복지관 사무실, 운동처방실 등 6개

의 프로그램실이 들어서게 되고, 3층은 요가 및 무용교실 등 7개의 프로그램실로 총 2,325㎡(703평)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다. 기존 노인복지관에 비해 두배 이상 큰 규모로 지어지며,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기존 250여명에서 2~3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특히 도시에 비해 문화적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요가와 탁구, 정보화교육, 난타 등 다양한 프로그램실을 배치할 계획이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까지 추진하게 되면서 임실군의 효심행정은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정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100여 가구에 해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20만원 상당의 효도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숙원사업인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 완료되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복지 향상 및 어르신들을 행복하고 안전한 쉼터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기념사를 통하여 "노인인구가 32.6%로 어르신들이 많은 임실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는 주민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한 행정에 각별히 신경쓰는 임실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지역 어르신들의 행복쉼터가 될 노인종합복지관이 첫 삽을 뜨게 됐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수행기관

순창군립도서관 선정

저자강연, 지역 현장탐방 연결 문화콘텐츠 창출

순창군립도서관이 3년연속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작가와 함께 문학숙의 현장을 찾아가 소통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콘텐츠가 더욱 빛을 볼 전망이다.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사회의 인문정신문화를 부흥하고, 독서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 문화와 교육의 거점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재고하기 위해 전국 1,010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순창군립도서관은 2015년, 2016년에

이어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강사료와 현장탐방비 등을 포함, 총 1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8월 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인문학 특강을 2회씩 진행하고, 토요일에는 작가와 함께 현장을 탐방할 계획이다.

순창은 노사 기정진을 비롯해서 빼어난 유학자가 많이 배출된 곳이자 유교·불교·도교, 3교가 숨 쉬고 있는 전통적인 인문도시이다. 이번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조선 기호 유학의 마지막 학자인 간재 전우 선생의 시대정신을 조명하고 근대 불교

중흥의 중심지인 구암사를 집중 조명하며 도교의 슬로명명관과 순창의 슬로푸드를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는 기회를 갖는다.

진행될 강좌는 ▲전북대 황강연 교수의 '수사선도의 간재, 그의 시대정신과 위정척사' ▲군장대 박광철 교수의 '근대 불교 중흥의 중심지, 순창 구암사를 가다', ▲황강연 교수와 군장대 양향숙 교수의 '도기의 슬로명명관과 순창의 슬로푸드' 등이다.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철학,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애향심까지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관욱 문화관광과장은 "길 위의 인문학 강좌를 통해 책과 사람과 현상이 만나는 역동적인 문화체험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순창군 문화융성과 지역사회 인문정신문화 거점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경북 문경 국제정구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순창군청 정구단이 단체전 3위와 개인단식(이광삼)3위를 차지했다.

'정구메카 순창' 을 알리다

순창군청 정구단, 전국대회 단체전 3위·개인단식 3위

순창지역 정구 선수단이 제96회 동아일보 전국정구대회에 출전해 '정구메카 순창'을 전국에 알렸다.

9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경북 문경 국제정구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순창군청 정구단이 단체전 3위와 개인단식(이광삼)3위를 차지했다. 제이고 남자팀은 단체전 준우승, 여자팀은 개인복식 1위(김연화, 조은정), 2위(채지수, 박지현)3위(이정운, 권은희)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순창군청 정구단은 지난 3월에 개최된 제39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에서도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제이고 남자팀, 여자팀은 단체전 각각 3위, 4위에 개최된 제23

회 장원배 전국중고등학교 정구대회서 제이고 남자팀 단체전 준우승, 여자팀은 단체전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처럼 순창지역 정구 선수단이 꾸준히 성적을 내는 것은 순창출신 지도자 선생님의 후진양성과, 목목히 후원하는 정구 동호인클럽의 역할도 크다고 전해지고 있다.

순창지역 정구 선수단은 초등 남,여, 중등 남,여, 고등 남,여와 군청 실업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에 모듬팀이 단체전, 개인전에 입상한 바 있다.

순창지역의 유일한 동호인 클럽인 화이트볼정구클럽 또한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문클럽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 지사면 주거환경개선 실시

임실군 지사면 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혜운, 조완열) 15명은 9일 관내 기초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임실노인복지관에서 후원받아 거동이 불편한 자녀와 언어·청각장애 자부와 함께 살고 있는 계촌마을 고순덕(92세)씨 가정을 방문했다.

노후되고 낡아서 교체가 시급한 방도배 및 낡은 장판을 교체하고 지저분한 방 및 화장실 청소를 실시하여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았다.

조완열 위원장은 "앞으로도 면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행복보장협의체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혜운 지사면장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소외된 취약계층 지원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사면 행복보장협의체는 2016년 5월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정기적인 목욕봉사 실시, 사례관리 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천변 풀베기 제조작업 실시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민중당 임실지역 예비후보자 매니페스토 선언 실천 결의

더불어민주당 임실군 예비후보자 매니페스토 선언 실천 결의대회가 9일 임실군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기로 했다.

이날 매니페스토 결의대회는 전상두 임실군수 예비후보를 비롯한 한완수 도의원 예비후보, 군의원 예비후보 등 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깨끗한 선거와 공명선거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정책을 통해 더 큰 임실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짐했다.

이들은 이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에 앞장, 임실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 분열 아닌 화합의 선거 등 모든 후보들이 한마음으로 임실군민에게 염속히 약속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